

産 ㅁ 끝예 "건설기술/쌍용"이 창간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들어 WTO의 출범으로 전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이어지고 건설시장 또한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건설기술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화·개방화의 물결속에 건설업이 무한 경쟁시대에 들어선지는 이미 오래고 특히나 우리의 안방까지 밀고 들어올 선진국의 기술은 머지않아 적자생존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각 기업들이 남과 차별되는 제품을 공급하고 갈수록 고급화·다양화되는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세계 선진기업보다 나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독창적인 자체기술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기술수준은 아직도 상당부분 단순시공에 머무르고 있어 '3D 기피현상'에 따른 인력부족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여러가지 장애요인 극복에는 상당히 미흡하며, 나아가 국내 건설시장의 대외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 확보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오직 「기술만이 살 길이다」라는 대명제 아래 국내의 모든 건설회사와 건설인들이 '기술력 제고'라는 공동인식과 공동목표를 가지고 기술의 개발 및 축적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周知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쌍용건설에서 기술정보지를 창간한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의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건설기술/쌍용"이 기존에 소화·흡수된 기술을 심화시켜 독창적인 신기술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모든 쌍용인이 기술혁신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케 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기술정보지가 지속적으로 발간되어 명실상부 쌍용건설의 기술발전을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됨은 물론 쌍용그룹과 국내 건설업계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